

# 시설거주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 -강원도 지역 무료양로시설을 중심으로-

###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Esteem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 -Focusing on the Free Institutionalized Elderly in Gangwon-do Area-

류해룡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aeRyong Lyou(peace6435@daum.net)

#### 요약

본 연구는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을 자기이해, 바람직한 경청, 명확한 의사표현, 자기느낌 표현, 자기개방 등 5개 하위요소로 나누어 각 변인들과 자아존중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사점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강원도의 무료양로시설(춘천1, 원주1, 강릉1)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2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수준 차이는 취미, 종교유무, 용돈,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종교, 생활비 부담자, 취미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셋째 의사소통 기술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즉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여준다.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시설에 거주 노인들을 위해서는 취미생활과 종교 생활 그리고 충분한 용돈과 생활비 부담을 본인이 하게 한다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의사소통 기술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시설거주 노인 | 의사소통 기술 | 자아존중감 | 무료양로시설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living in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divided the communication skill of the aged into 5 subsidiary factors such as self-understanding, attentive listening, clear expression of intention, expression of personal feeling, and self-disclosure so as to grasp the 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and self-esteem and to search suggestions. For the methodology, senior citizens aged above 65 living in public institutions in Gangwon province (1 in Chuncheon, 1 in Wonjoo and 1 in Gangneung) were surveyed totaling 123 documen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th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kills, in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re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hobbies, religion, allowance and the most reliable person. Second, self-esteem, in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ligion, whether the person pays his/her living expenses, hobbies and health conditions. Third, communication skills tend to influence self-esteem that an elderly with more self-esteem is shown to have higher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elders living in public institutions, the following actions are suggested. They should be recommended with religion life, hobbies life and providing sufficient allowance, pay his/her own life expenses.

■ keyword : | Institutionalized Elderly | Communication Skill | Self-Esteem | Public Institutions |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4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16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16일

교신저자 : 류해룡, e-mail : peace6435@daum.net

## 1. 서론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1] 1990년의 평균수명이 71.3세에서 2013년 81.94세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높아져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3].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65세 이상인구는 16.6%이지만, 5년 뒤인 2020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고, 2030년에는 강원도의 도민 약 3명당 1명꼴로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 현재부터 적어도 9년 동안 강원도는 계속해서 생산인구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4]. 이러한 한국의 압축적 고령화 현상은 이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주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절대적 수와 초 고령 노인 수의 비율적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의료시설 및 양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규모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가족이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건만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유료, 무료양로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아파트, 노인촌, 노인연립주택, 노인휴양소 등의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 가능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설입주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5].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노인 무료양로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가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6]. 갈 곳이 없어서 입소하는 무료시설차원에서 하나

의 선택으로서 자발적으로 노인 주거시설을 찾는 노인들로부터 고가의 노인 공동주거시설로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소한의 욕구충족에 기능하는 공공가정의 서비스가 지향되며 그 비율도 더욱 높아지리라 예측된다[7]. 이러한 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시설 입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생애에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시설 입소와 함께 노인들은 살던 집과 이웃을 상실하게 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접촉이 적어지게 된다[8]. 특히 시설 거주노인의 경우 입소와 관련하여 비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 환경조절능력 및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있고, 그것으로 시설 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9-11]. 이러한 상황들은 시설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불 때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희정(2002)[12]은 시설 거주 노인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재가노인보다 시설 거주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온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시설 노인에게 있어서 자아 존중감은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곧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13].

따라서 나이가 들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서 노년기의 여생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김정환과 김향희(2009)[14]의 ‘노년층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서 상태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은, 이수환(2007)[15]은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부부의사소통 연구에서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영나(2001)[16]는 Bienvenu(1970)의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선우(2002)[17]는 Christensen and Sullaway(1984)가 개발한 상호 회피 요구-철수, 손 상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

여 긍정적 의사소통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사현(2011)[18]은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나타냈으며, 정신섭(2014)[19]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시설거주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설거주 노인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연구들은 수가 적으면서도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으나, 무료양로 시설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시설 거주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시설 노인들의 노년기 삶에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20][21], 시설 거주 노인관련 교육, 상담 및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1) 무료양로 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 기술은 어떠한가? 2) 시설 거주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기술, 자아존중감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시설 노인의 특성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재가노인보다 국내 생활시간이 더 길며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이 적다[22].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무료한 일상생활이다 보니 활력이 적고, 목적도 삶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고 자신에 대해 돌아볼 기회도 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3]. 그러나 무료양로시설의 노인들은 일상생활과 거동이 가능[6]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가능하나 참여율은 적다. 장순자(2001)[24]의 연구에서는 조사한 11개

무료양로시설의 약91%가 체조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배 등의 종교프로그램과 종이접기 등의 취미프로그램은 약 82%, 노래교실 등의 오락프로그램은 약73%, 게이트볼 등의 운동 프로그램은 약55%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곽현근(2002)[2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참여도는 약20-40%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시설 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정화(1995)[26]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에 입소하는 많은 경우는 건강악화로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베풀어 줄 수 없을 때인 경우로 집에서 가족들에게 보호 받아야 할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입소하게 되므로 입소 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양상은 갑자기 변한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없다든지,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조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신을 버린 가족을 원망하기도 한다[27]. 노인들의 성격적 특징으로 윤진(1995)[28]은 소외와 고독감, 역할상실, 정체성 상실과 소극적인 성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성역할 지각의 변화, 경직성과 조직성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등을 언급하였다. 시설 노인들 역시 혼란, 무언, 주의 산만, 고집 등 성격에 결함이 많고 나이가 높을수록 경직성이 증가하여 자기생활의 패턴을 더욱 고집하게 되며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된다. 또한 최성재·장인협(2003)[29]은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시기로 보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역할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의 역할에 대한 모델 확립이 되지 않았고, 가사 일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별히 노년기에는 직장 등과 같은 2차 집단과의 유대관계 및 참여 정도는 줄어들고 가족, 친척, 이웃 등과 같은 1차 집단과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며, 그중에서도 가족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핵심적 관계축이 된다.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은퇴 또한 노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적 역할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며,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탈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한다[30].

시설노인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살아온 자기 나름의 세계와 영역을 인정받고 싶어 하나 따뜻한 인간적 결합이 없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자신의 요구나 호소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 더욱 폐쇄적이고 고립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31]. Pamela(1995)[32]와 Chenitz(1983)[33]도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주로 혼돈, 불안, 우울, 외로움, 불면, 위축, 의존성, 상실감, 피로, 안절부절 등으로 나타났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가연(2000)[34]도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의미구조를 불행한 삶, 불가항력적인 삶, 원망스러운 삶, 외부 지향적인 삶, 스스로 위로하는 삶, 불만스러운 삶, 집착하는 삶, 회한의 삶, 보조화의 삶, 이성을 그리워하는 삶, 준비하는 삶, 소망을 지닌 삶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연현상인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 기능저하, 사별, 직장에서의 은퇴 등으로 인한 노년의 상실은 자아존중감을 잃게 되고 세상의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어 정서적 불안과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35]. 무료양로 시설노인들의 생활에 있어 누구나 늙어가며 “존엄”을 지키며 성공적 노화를 꿈꾸지만, 시설거주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으로서의 삶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있는바,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사소통”이란 점을 감안할 때 노년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아존중감 상실로 직결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의기소침하거나, 삶의 애착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의 자아 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36].

## 2.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특

질들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 요인이다[37].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애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하지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38].

Maddox(2001)[39]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서 정서적 자기평가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것은 시설노인들의 성공적인 삶과 만족을 느끼는데 필수적이며, 개인 환경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심리,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된다[40][4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노년기에 삶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42].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반면, 자기 경멸, 자기 불만을 나타내는 노인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43]. 시설노인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나 친척 등 일차적 보호자도 없으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외향적 노력도 없이 살게 된다. 즉 가족이나 친구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감 등을 보장 받을 수 없어 일반적으로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44]. Vanfossen, 1981[45], 김정선(1998)[46], 이정미(1990)[47]는 가정 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 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이는 Taft(1985)[48]가 말한 것처럼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면 자아존중감과 역상관이 있는 비난, 사회 상호작용의 저하, 환경 조절 능력의 상실 등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순돌(2004)[44]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비해 양로원 거주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경우는 가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만, 시설 노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하은호(2001)[49]의 연구에서는 시설 노인도 사회적 지지가 높

고 가족과 친척의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육정도가 높고,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가족 및 친척의 방문이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11]. 특히 양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정도, 학력과 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의 욕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국악, 그림,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 또한 양로원 노인의 경우도 건강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 양남영, 문선영(2010)[7]도 시설 거주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시설 노인들은 노년기 신체와 정서기능의 저하, 경제력 감소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참여기회의 감소,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 및 관심, 애정의 감소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되면서 낮아지는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중요한 문제로 발전되기도 한다[52][53].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54-57]. 이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 사회적 요인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시설노인들의 시설생활에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은 건강, 의사소통 등 삶의 질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시설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의사소통기술과 자아존중감

구현정, 전영옥(2005)[58]에 의하면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 정보를 나누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소통을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간에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 정보, 감정, 태도, 신념을 전달하고, 반응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유된 의미는 본질적으로 의미의 이해(understanding)를 포함하는 개념이다[59].

시설 노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노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 박은아(2003)[60]는 남녀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을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관계도 좋은 것을 알 수 있었고, 2005년에는 부부 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참여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박지은(2001)[61]은 양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행위상의 공유, 대화활동, 부부간 갈등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노부부의 의사소통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으며, 정신섭(2014)[19]도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현(2011)[18]은 노인의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 양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의사소통 기술 변인 중 자기이해, 자기개방, 바람직한 경청의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잘 전달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노인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2010)[62]연구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시설 노인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기술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면 시설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채워지리라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정완과 김향희(2009)[13]의 “노년층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자아존중감 또한 낮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시설 노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 III. 연구 방법

#### 제1절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은 강원도의 무료양로시설(춘천1곳, 원주1곳, 강릉1곳)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3일부터 11월16일까지, 첫째, 한글읽기가 가능한 노인들은 스스로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한글 읽기가 어려운 노인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읽어 주어 설문지에 답을 하게 했다. 둘째, 시설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설장을 통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께 직접 동의를 구했다. 셋째,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1회(1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문지의 취지와 방법, 사용 목적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1) 본 연구자와 본 조사의 취지 및 조사 방법을 교육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개인면담 조사를 하여 강릉에서 50부를 회수하였고, 2) 춘천과 원주에서는 그곳의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 후 조사를 수행하여 89부를 회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의 조사 합계 13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실한 16부를 제외한 총 12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제2절 조사 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지이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으로는 10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별(남,여), 연령, 학력(무학, 서당, 초졸, 중졸, 고졸, 대학교 졸업 이상),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기타 종교), 생활비 부담자(본인, 배우자, 자녀, 친척, 기타), 한 달 용돈, 취미생활(유, 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 건강상태(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시설에 거주한 기간 등이다.

의사소통 기술 관련 문항은 의사소통의 내용을 측정하려는 것보다 의사소통의 유형, 특성, 방법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Bienvenu(1971)가 개발한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신두균(198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되, 당초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들의 조사 편의성을 감안하여 평서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채점 체계는 5점 평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완전히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기술이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의사소통 하위기술영역의 문항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의사소통 기술 하위 요인 문항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자기이해	5, 7*, 13*, 20, 23*, 28, 37, 39	8
바람직한 경청	9, 29*, 30*, 31, 32, 33*, 34*, 35	8
명확한 의사표현	2, 3*, 4, 10*, 11, 26, 36, 40	8
자기느낌 표현	8*, 14*, 15, 17, 19, 21*, 27*, 38*	8
자기개방	1, 6*, 12, 16*, 18*, 22, 24, 25*	8
계		40

주) \* 역채점 문항(부록: 설문지 참조)

의사소통 기술 원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5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867로 나타났으며, 하위 기술 요인별로는 자기이해 .527, 바람직한 경청 .605, 명확한 의사표현 .512, 자기느낌 표현 .663, 자기개방 .62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여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0.5 이상일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의사소통의 구성요

소인 자기이해와 명확한 의사표현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 한 개씩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와 명확한 의사표현의 알파 계수가 다소 낮지만 의사소통 전체 척도의 알파 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역하여 이영자(1995)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타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1번-5번),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타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6번-10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척도로 부정적 5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 본 척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92였고, 이영자의 연구(1995)에서는 .79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745로 나타났다.

표 2. 의사소통 기술 하위 요인 및 자아존중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수		구성문항	Cronbach's $\alpha$
의사소통	자기이해	5,7,13,20,23,37,39	.527
	바람직한 경청	9,29,30,31,32,33,34,35	.605
	명확한 의사표현	2,3,10,11,26,36,40	.512
	자기느낌 표현	8,14,15,17,19,21,27,38	.663
	자기개방	1,6,12,16,18,22,24,25	.626
자아존중감	1,2,3,4,5,6,7,8,9,10	.745	

###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시설거주 노인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준  $\alpha=.05$ 를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제1절 연구대상 시설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1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7명(30.1%), 여자가 86명(69.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70세 미만인 9명(7.3%), 70-79세가 42명(34.1%), 80-89세가 57명(46.3%), 90세 이상이 15명(12.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54명(43.9%), 서당/초졸이 32명(26.0%), 중졸이 13명(10.6%), 고졸 이상이 24명(19.5%)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응답자가 24명(19.5%), 있는 응답자가 99명(80.5%)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부담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인 경우가 57명(46.3%), 가족이나 친척 등이 66명(53.7%)으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43명(35.0%), 10-19만원이 43명(35.0%), 20만원 이상이 37명(30.1%)으로 나타났으며, 취미는 있는 응답자가 47명(38.2%), 없는 응답자가 76명(61.8%)으로 나타났다.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배우자 10명(8.1%), 아들·딸이 46명(37.4%), 사위·며느리가 4명(3.3%), 기타 63명(51.2%)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음 29명(23.6%), 보통 57명(46.3%), 나쁨 37명(30.1%)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거주기간은 3년 미만 40명(32.5%), 3년-5년 미만 26명(21.1%), 5년-9년 미만 32명(26.0%), 10년 이상 25명(20.3%)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7	30.1
	여자	86	69.9
연령	70세 미만	9	7.3
	70-79세	42	34.1
	80-89세	57	46.3
	90세 이상	15	12.2
	무학	54	43.9
학력	서당/초졸	32	26.0
	중졸	13	10.6
	고졸 이상	24	19.5
종교	무	24	19.5
	유	99	80.5
생활비 부담자	본인/배우자	57	46.3
	가족/친척/기타	66	53.7
한 달 용돈	10만원 미만	43	35.0
	10-19만원	43	35.0
취미 유무	있음	37	30.1
	없음	47	38.2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배우자	76	61.8
	아들/딸	10	8.1
	사위/며느리	46	37.4
	기타	4	3.3
건강상태	기타	63	51.2
	좋음	29	23.6
	보통	57	46.3
시설 거주기간	나쁨	37	30.1
	3년 미만	40	32.5
	3년-5년 미만	26	21.1
	5년-9년 미만	32	26.0
	10년 이상	25	20.3
전체		123	100.0

### 제2절 시설노인의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기술 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의사소통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자기이해가 평균 3.26, 바람직한 경청이 평균 3.44, 명확한 의사표현이 평균 3.45, 자기느낌 표현이 평균 3.24, 자기개방이 평균 3.37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평균 2.77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는데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를 진행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노인의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의사소통	자기이해	3.26	0.49	-0.04	0.81
	바람직한 경청	3.44	0.47	0.13	-0.06
	명확한 의사표현	3.45	0.47	0.35	0.44
	자기느낌 표현	3.24	0.54	0.35	1.05
	자기개방	3.37	0.49	0.34	1.09
자아존중감	2.77	0.43	0.03	-0.25	

### 제3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5]와 같이 의사소통의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수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미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취미가 있는 경우( $M=3.51$ )가 없는 경우( $M=3.10$ )보다 자기이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경청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종교, 취미유무,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종교가 있는 경우( $M=3.49$ )가 없는 경우( $M=3.2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미가 있는 경우( $M=3.64$ )가 없는 경우( $M=3.32$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M=3.73$ )는 사위나 며느리인 경우( $M=3.2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명확한 의사표현 수준은 취미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취미가 있는 경우( $M=3.64$ )가 없는 경우( $M=3.34$ )보다 명확한 의사표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생활비 부담자, 한 달 용돈, 가장 의지하는 사람, 건강상태, 시설 거주 기간 등은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자기느낌 표현 수준 차이에서는 한 달 용돈 과 취미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한 달 용돈은 많을수록 자기느낌 표현 수준이 높았으며, 취미는 있는 경우( $M=3.47$ )가 없는 경우( $M=3.0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자기 개방 수준 차이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생활비 부담자, 한 달 용돈, 가장 의지하는 사람, 건강상태, 시설 거주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취미 유무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 $p < .001$ ), 취미가 있는 경우( $M=3.57$ )가 없는 경우( $M=3.2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자기이해, 바람직한 경청, 명확한 의사표현, 자기느낌 표현, 자기개방

의사소통 변수	구분	N	M	SD	t/F	p	
자기이해	취미 유무	있음	47	3.51	0.46	4.910***	.000
	없음	76	3.1	0.44			
바람직한 경청	종교	유	99	3.49	0.45	2.322*	.022
		무	24	3.24	0.51		
	취미 유무	있음	47	3.64	0.5	3.938***	.000
		없음	76	3.32	0.41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배우자	10	3.73 <sup>b</sup>	0.7	4.269**	.007
		아들/딸	46	3.57 <sup>ab</sup>	0.48		
사위/며느리		4	3.28 <sup>a</sup>	0.47			
기타	63	3.32 <sup>ab</sup>	0.39				
명확한 의사표현	취미 유무	있음	47	3.64	0.54	3.574**	.001
	없음	76	3.34	0.38			
자기느낌 표현	한달 용돈	10만 원미만	43	3.06 <sup>a</sup>	0.47	4.097*	.019
		10-19만원	43	3.29 <sup>ab</sup>	0.56		
		20만 원이상	37	3.38 <sup>b</sup>	0.54		
	취미 유무	있음	47	3.47	0.53	3.934***	.000
없음	76	3.09	0.49				
자기개방	취미 유무	있음	47	3.57	0.54	3.637***	.000
	없음	76	3.25	0.43			

\*\*\*  $p < .001$ , \*\*  $p < .01$ , \*  $p < .05$

제4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종교, 생활비 부담자, 취미 유무, 건강상태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먼저 종교는 있는 경우( $M=2.81$ )가 없는 경우( $M=2.61$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생

활비 부담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인 경우( $M=2.86$ )가 가족이나 친척 등인 경우( $M=2.7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취미 유무에 따라서는 취미가 있는 경우( $M=2.96$ )가 없는 경우( $M=2.6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은 경우( $M=2.95$ )가 보통( $M=2.76$ )이거나 나쁜( $M=2.66$ )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F	p
성별	남자	37	2.76	0.39	-0.154	.878
	여자	86	2.78	0.45		
연령	70세 미만	9	2.66	0.55	0.405	.749
	70-79세	42	2.75	0.39		
	80-89세	57	2.81	0.45		
	90세 이상	15	2.77	0.39		
학력	무학	54	2.79	0.42	0.704	.551
	서당/초졸	32	2.74	0.49		
	중졸	13	2.92	0.33		
	고졸 이상	24	2.72	0.40		
종교	유	99	2.81	0.44	2.142*	.034
	무	24	2.61	0.36		
생활비 부담자	본인/배우자	57	2.86	0.44	2.133*	.035
	가족/친척/기타	66	2.70	0.40		
한 달 용돈	10만원 미만	43	2.78	0.41	0.057	.945
	10-19만원	43	2.78	0.42		
	20만원 이상	37	2.75	0.47		
취미 유무	있음	47	2.96	0.42	4.004***	.000
	없음	76	2.66	0.40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배우자	10	3.06	0.47	2.075	.107
	아들/딸	46	2.80	0.38		
	사위/며느리	4	2.73	0.68		
기타	63	2.71	0.43			
건강상태	좋은	29	2.95 <sup>b</sup>	0.48	3.874*	.023
	보통	57	2.76 <sup>a</sup>	0.39		
나쁨	37	2.66 <sup>a</sup>	0.41			
시설 거주기간	3년 미만	40	2.70	0.41	0.741	.529
	3년-5년 미만	26	2.79	0.33		
	5년-9년 미만	32	2.81	0.45		
	10년 이상	25	2.84	0.51		

\*\*\*  $p < .001$ , \*  $p < .05$

표 7.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자아존중감	1						
2. 자기이해	.474**	1					
3. 바람직한 경청	.520**	.632**	1				
4. 명확한 의사표현	.359**	.520**	.573**	1			
5. 자기느낌 표현	.339**	.538**	.438**	.361**	1		
6. 자기개방	.489**	.571**	.664**	.519**	.474**	1	
7. 의사소통 전체	.552**	.818**	.835**	.733**	.735**	.823**	1

\*\*  $p < .01$

표 8.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1단계			2단계		
		$\beta$	$t$	$p$	$\beta$	$t$	$p$
의사소통		.552	7.286***	.000	.510	6.453***	.000
종교	없음						
	있음				.157	2.147*	.034
생활비 부담	본인/배우자						
	가족/친척/기타				-.047	-0.613	.541
취미	없음						
	있음				.070	0.839	.403
건강 상태	나쁨						
	보통				.153	1.830	.070
	좋음				.330	3.901***	.000
F		53.086( $p<.001$ )			13.669( $p<.001$ )		
R-square		.305			.414		
adj R-square		.299			.384		

\*\*\*  $p<.001$ , \*  $p<.05$

표 9.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1단계			2단계		
		$\beta$	$t$	$p$	$\beta$	$t$	$p$
의사소통	자기이해	.177	1.622	.107	.184	1.749	.083
	바람직한경청	.261	2.260*	.026	.176	1.540	.126
	명확한의사표현	.004	0.038	.970	.000	-0.005	.996
	자기느낌표현	.035	0.380	.704	.015	0.169	.866
	자기개방	.197	1.821	.071	.245	2.293*	.024
종교	없음						
	있음				.146	1.914	.058
생활비 부담	본인/배우자						
	가족/친척/기타				-.050	-0.653	.515
취미	없음						
	있음				-.075	-0.889	.376
건강 상태	나쁨						
	보통				.154	1.756	.082
	좋음				.337	3.956***	.000
F		11.458( $p<.001$ )			8.712( $p<.001$ )		
R-square		.329			.438		
adj R-square		.300			.387		

\*\*\*  $p<.001$ , \*  $p<.05$

### 제5절 의사소통 기술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모든 구성요소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0$ ,  $p<.01$ ). 즉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일대일 관계만을 살펴보았지만, 의사소통 능

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앞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던 종교, 생활비 부담자, 취미 유무,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1단계와 2단계 모두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 수정된 R제곱은 각각 .299, .384로 나타나 1단계는 29.9%, 2단계는 38.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

성 검증 결과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9]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앞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던 종교, 생활비 부담자, 취미 유무,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와 2단계 모두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수정된 R제곱은 각각 .300, .387로 나타나 1단계는 30.0%, 2단계는 38.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바람직한 경청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자기개방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기 때문에 2단계의 결과를 따른다면, 노인의 자기개방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료 양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강원도 관할의 3개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전수 조사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기술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모든 구성요소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 ,  $p < .01$ ). 즉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의사소통 기술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앞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왔던 종교, 생활비 부담자, 취미 유무,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1단계와 2단계 모두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수정된 R제곱은 각각 .299, .384로 나타나 1단계는 29.9%, 2단계는 38.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와 2단계 모두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바람직한 경청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자기개방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기 때문에 2단계의 결과를 따른다면, 노인의 자기개방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기개방은 취미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사현(2011)[18]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의사소통 기술 변인 중에서는 자기이해, 자기개방, 바람직한 경청 등의 변인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서사현(2011)[18]의 60세 이상 일반 노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이해, 자기개방, 바람직한 경청의 3가지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5세 이상 시설 노인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자기개방, 바람직한 경청, 명확한 의사표현, 자기느낌 표현의 모든 변인에서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는 1단계에서는 바람직한 경청이, 2단계에서는 자기개방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의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소통의 모든 구성요소와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첫째, 취미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의사소통 기술이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 노인들의 취미 생활로는 바둑교실, 장기교실, 한글교실, 외국어 교실, 노래교실, 독서교실, 운동(게이트볼, 탁구, 풍선 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설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서 시설노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장려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가 없는 시설 노인들도 많이 있다. 종교가 있는 시설 노인들에게는 종교적인 활동(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개방하고, 종교가 없는 시설 노인들에게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여가 프로그램을 건강, 종교, 취미, 오락, 운동 기타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11개의 무료양로시설을 조사한 장순자(2011)[25]의 연구에서는 조사시설의 대부분이 체조 등의 건강프로그램, 예배 등의 종교프로그램과 종이접기 등의 취미프로그램, 노래교실 등의 오락프로그램, 게이트볼 등의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서 시설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 기술이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63][64]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취미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이나 자아존중감의 각각의 변인들에 있어서 취미가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 노인들 스스로 용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금액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설에서 가족들과의 상담 시 규칙적인 용돈지원 및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현재 무료 양로시설 노인들은 대부분 용돈으로 한 달 노령연금 20만원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가 의사소통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광경화(2016)[65]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독거노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장했듯이 동거인이 없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나 자괴감이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함을 알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배우자가 있으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자주 만날 수 있게 시설에서 장소를 제공해 드린다면, 시설 노인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은 본 연구는 강원도에 있는 무료양로시설 3곳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시설 노인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전국적인 단위로 연구를 하는 편이 시설거주 노인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제시되었으나,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특히 무료양로시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 거주 노인들의 의사소통이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15.
- [2]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3] 이선영, 김영훈, 김한성, “베이비세대가 65세 노인 인구로 전환 시의 만성질환 환자수와 진료비 예측,” 보건행정학회지, Vol.23, No.4, pp.377-386, 2013.
- [4] 박혜경, “성인지 통계로 본 강원도 베이비 세대 여성의 실태,” 강원성인지 통계, Vol.74, 2015.
- [5] 최유호, 김윤정, 김용미,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0, pp.226-236, 2010.
- [6] Y. R. Lee and M. S. Park, “A Study on The Leisure Program Constraint Factor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focusing on the free 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5, No.3, pp.41-58, 2005.
- [7] 문숙재, 송혜립, 김선희, 이기영, 김난도, 김순미, 박미석, 조희금, 공공가정경영, 서울: 신정, 2009.
- [8] N. Y. Yang and S. Y. Moon, “Effects of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on Adaptation of Elderly Residents in Facilities,” J Korean Acad Adult Nurs, Vol.22, No.5, pp.552-560, 2010.
- [9] S. P. Hirst and B. J. Metcalf, “Promoting Self-Esteem,” Journal of Gerontology Nursing, Vol.10, No.2, pp.72-77, 1984.
- [10] W.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Nursing Science, Vol.18, No.2, pp.31-38, 2007.
- [11] K. S. Song,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in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7.
- [12] 신희경, 시설거주 노인의 자아존중감 연구,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서현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후기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4] 김정환, 김향희, “노년층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문헌 연구,” 언어청각장애 연구, 제14권, 2009.
- [15] 정은, 이수한,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1, 2007.
- [16] 김영나,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7] 김선우, 노년기부부의 의사소통행동과 결혼만족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18] S. H. Seo,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Skills & Self-Esteem Among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1.
- [19] 정신섭, 노인의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0] 김성혜,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1] 김양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2] 송애랑, 여가활동프로그램 중재가 시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23] 김향숙, 강원도 노인복지(무료양로)시설 생활자의 여가 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4] 장순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5] 박현근, 무료 노인 주거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6] 신정화, “노년층의 여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관

- 광래저연구,” 제7권, pp.73-85, 1995.
- [27] 서영희,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여성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스포르츠복지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8]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판사, 1985.
- [29]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30] 정옥분,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2007.
- [31] 이기순, *양로원 시설 거주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2] S. Pamela, “Relocation Stress Syndrome: A Comprehensive Plan for Long-term Care Admissions,” *Geriatric nursing*, Vol.16, No.3, pp.108-112, 1995.
- [33] W. C. Chenitz, “Entry Into a Nursing Home as Status Passage: a Theory to Guide Nursing Practice,” *Geriatric Nursing*, Vol.4, pp.92-97, 1983.
- [34] G. E. Lee, “Scale Development of Free Nursing Home Adjustment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37, No.5, pp.736-743, 2007.
- [35] 임현정, *노인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죽음 불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6] 박은아,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의사소통, 의사결정참여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3권, 제3호, 2005.
- [37] 어주경, 정문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Vol.20, No.2, pp.21-40, 1999.
- [38]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 [39] G. L. Maddox, R. C. Atchley, J. G. Evans, R. B. Hudson, R. A. Kane, E. J. Masoro, M. D. Mezey, L. W. Poo, and I. C. Siegler, *The Encyclopedia of Aging*, Spring Publishing Company: New York, 2001.
- [40] 권태연,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2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40, No.1, pp.163-196, 2009.
- [41] 송대현, 박한기,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12, No.1, pp.79-96, 1992.
- [42] 윤명숙, 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Vol.32, No.2, pp.397-413, 2012.
- [43] 곽아람, 허만세, 이신영,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Vol.35, pp.315-335, 2015.
- [44] 정순돌,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노년학회지*, Vol.24, No.4, pp.107-122, 2004.
- [45] B. F. Vanfossen,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Equ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2, pp.130-143, 1981.
- [46] 김정선,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Vol.28, No.1, pp.148-158, 1998.
- [47] 이경미, “양로원 거주노인과 가정 거주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9권, pp.317-329, 1990.
- [48] L. B. Taft,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 in Nursing Science*, Vol.8, No.1, p.82, 1985.
- [49] 하은호, *양로원 시설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50] 김영숙, *시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심리적 욕구 중심*, 서울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51] 전시자,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일 병원 입원 노인환자와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간호전문대 논문집, Vol.10, pp.125-144, 1988.
- [52] M. Domken, J. Scott, and P. Kelly, “What Focus Predict Discrepancies Between Self and Observer Ratings of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31, No.4, pp.253-259, 1994.
- [53] D. Brage and N. Meredith, “A Caus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Psychology*, Vol.128, No.4, pp.455-468, 1994.
- [54] 권정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5] 김미선,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56] 사영화, 조성제,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이용만족도와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Vol.15, No.2, pp.706-716, 2014.
- [57] 조추용, “노인의 죽음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63, pp.203-227, 2014.
- [58] 구현정, 전영옥, *의사소통의 기법*, 서울: 박이정, 2005.
- [59] 이경순, 이미경, 김경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현문사, 2006.
- [60] 이정우, 박은아,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 가족자원 경영학회지*, 제7권, 제2호, 2003.
- [61] 박지은,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62] 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Vol.5, No.1, pp.40-48, 2010.

- [63] 김연희, 김기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7권, 제1호, pp.157-189, 2002.
- [64] 송기숙, *노인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65] 광경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 pp.8-10, 2016.

### 저 자 소 개

류 해 룡(HaeRyong Lyou)

정희원



- 2005년 9월 : Northwest Baptist Seminary졸업(D.Min Canada)
  - 2016년 2월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7년 9월 ~ 2011년 6월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2007년 9월 ~ 2016년 현재 : 강릉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